

윤호중 장관 여수세계섬박람회 현장 찾아 관람객 안전·편의 사항 집중 점검

- 4월 21일(화) 여수 행사장 방문, 공정률·안전·교통·편의시설 등 종합 점검
- 행정안전부-지방정부 협력으로 우려 해소, 체계적 지원 추진

- 행정안전부는 윤호중 장관이 4월 21일(화) 전라남도 여수시를 방문하여 ‘2026여수세계섬박람회’ 준비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고 밝혔다.
- 이번 점검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여수세계섬박람회가 전남·광주통합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국제행사인 만큼, 중앙정부 차원에서 준비 상황을 빈틈없이 점검해 줄 것을 당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.
- 윤 장관은 이날 주요 행사장 공정률은 물론, 관람객 안전 및 교통 대책, 편의시설 확충 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.

<인프라 조성 7월 말까지 완료 주문, 교통 혼잡 최소화 대책 마련 강조>

- 윤 장관은 주 행사장인 돌산읍 진모지구를 방문해 도로·광장, 전기·통신 기반 등 기초 인프라 조성과 전시관 등 주요시설의 공정률을 확인했다. 이 자리에서 윤 장관은 당초 계획대로 7월까지는 모든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.
- 특히 원활한 행사 운영을 위해 주 행사장 진입도로 등에 대한 교통량 정밀분석을 실시하고, 행사기간 중 교통 혼잡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.

<예산 33억 원 지원, 관람객 편의와 물가 관리 만전>

- 관람객 편의와 상거래 질서 유지를 위한 준비 상황 점검도 이루어졌다.
- 윤 장관은 화장실 확충과 청결관리, 쉼터 및 그늘막 설치, 숙박·음식업소 바가지요금 대책 마련, 행사장 인파 관리, 해양쓰레기 정비 등을 통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전라남도과 여수시에 요청했다.

- 아울러, 행정안전부는 여수시의 협조 요청에 따라 부 행사장인 금오도와 개도를 비롯한 주요 섬에 이동식 화장실, 그늘막 설치, 해양쓰레기 처리 등에 필요한 예산 33억 원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계획*을 변경하여 우선 투자하도록 조치했다.

* 섬의 생활기반시설 정비, 확충을 위한 섬 발전사업(특수상황지역개발)

<섬의 가치 알리는 국제행사, 민관 합동 점검단 운영 예정>

-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 및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, 교통, 안전 등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단을 운영하여 박람회 준비 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, 필요한 지원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.
- 오는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여수에서 개최되는 ‘2026여수세계섬박람회’는 ‘섬, 바다와 미래를 잇다’라는 주제로 열린다.
 - 주 행사장에서는 다채로운 섬 관련 영상이 미디어 파사드로 구현되며, 섬해양생태관, 섬놀이터, 섬식당마켓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.
- 윤호중 장관은 “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섬의 가치를 널리 알리며, 섬의 미래 가능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이자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국제행사”라며,
 - “행정안전부는 관람객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두고, 박람회가 차질없이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적극 협력해 정부 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자치혁신실 균형발전진흥과	책임자	과 장	박유정 (044-205-3530)
		담당자	서기관	정태욱 (044-205-3524)

